

왕 노릇 한번 해봅시다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 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 두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 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개역, 요한계시록 22:1~5]

오 늘도 무척 무더웠습니다. 천국 가면 이런 고생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는 각오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이런 더위나 다른 고생은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하는 게 있을 텐데...? 우린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찬양? 예배? 그밖에 없습니까? 본문 5절 끝에 보시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입니다. 왕이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할텐데 우리가 왕이 되면 백성은 누가 하지요? 우리가 왕이 되면 예수님은 무얼 하시죠? 우리가 왕 노릇하리라는 구절이 여기 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우린 분명히 천국에 가면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하신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한 번 해 보시렵니까? 천국가서 어떻게 왕 노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계시록을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신비로운 책? 아니면 좀 어려운 환상이나 상징으로 가득 차서 알기 어려운 책입니까? 계시록은 해석이 하도 다양해서 내용을 알기 어렵거나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마술책처럼 생각해서 이 속에 종말의 어떤 비밀이 수수께끼처럼 숨어 있을 것이라 해서 그걸 찾고 뒤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절의 대부분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의 몇 구절만 떼어내면 아주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에 딱 알맞지요. 그래서 우리로서 잘 알기 어려우니까 그만 덮어놓자. 그래서 공부도 잘 안 하고, 읽기는 해도 자세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칼빈도 계시록은 주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칼빈 선생이 성경 전체의 주석을 다 남겼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계시록만 빠져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칼빈도 주석하지 않은 책이라는 말로 계시록을 신비롭고 두려움이 가득한 책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데도 이 책은 알기 어려우니까 덮어놓고 지내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덮어놓고 지낼 책이 결코 아닙니다. 이 책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이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현실에 적용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으며 이해하기 전혀 어려운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사도 요한이 교회대표로 활동하다가 밧모 섬에 귀양가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된 책을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이 사람을 겁주고 공갈치는데 사용하고 있으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계시록은 결코 그렇게 사용될 책이 아닙니다.

본문 22장은 계시록에서도 거의 끝입니다. 완전히 끝입니다. 성경전체로 보았을 때도 물론 끝이지요. 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시작했던 그 에덴동산,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처음 창조했던 그 에덴동산을 범죄한 이후에 잃어버렸는데 마지막에 와 보면 그것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길고 긴 하나님의 이야기가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막을 내립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것 두 가지가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무엇이 회복되고 있지요? 1절 2절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보이고 생명나무가 있고 2절 끝에 보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세 군대를 비교해 보면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을 살펴보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면서 참으로 아름다웠던 그 에덴동산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은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곳곳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여기에서는 깨끗이 사라지고 생명이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된 낙원에 생명수의 강이 아주 크게 흘러갑니다. 엉뚱한 생각입니다마는 생명수 강에는 빠지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생명수도 강인데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생명나무 과실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그걸 배 터지게 먹으면 탈이 날까요 안 날까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배 터질 일도 없고 탈 날 일도 없는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에덴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에덴동산에 생명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는 것으로 보아서 어찌면 한 그루만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강가에 생명나무가 죽 늘어서 있고 12가지 과실을 달마다 맺더라는 것은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동산보다 훨씬 풍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창조하시고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만드실 것은 하나님의 처음 계획 속에 다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를 해서 아담이 범죄하게 되고 혹은 하나님께서 예측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말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악과 이야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놓은 이 에덴동산은 창세기의 에덴동산과 비교했을 때 여기가 훨씬 더 내용이 풍성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제 선악과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선악과는 역할을 다 했습니다. 대신에 생명나무가 풍성하게 많아졌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한 때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화염검으로 그룹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그룹'이라니까 Group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사가 이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화염검은 뭘니까? 검은 칼이고 화염은 불과 연기죠. 불과 연기를 똑똑 뿜어내는 칼이 빙빙 돌면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그 생명나무입니다. 인간 게놈 지도를 그려냈다고 하면서 사람이 드디어 신의 영역에 도전했다, 생명을 사람이 찾아냈다고 하는데 글썩요? 아마 엄청나게 넓은 바닷가에서 밭 하나 겨우 물에 담근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생명의 길로 들어섰다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막아두신 곳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회복된 낙원에는 풍성하게 있다고 합니다.

또 에덴동산에는 저주가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 저주는 정말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그전에는 고통이라는 것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 다음에 엄청난 고통이 다가왔죠. 우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 태어나서 그런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주가 없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아는 아담의 입장에서 범죄한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어찌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던 부잣집이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서 거지가 된 꼴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모든 인류의 삶은 거지형상이나 비슷합니다. 원래 우린 참 부자였었는데 그런 거지꼴로 살던 우리의 삶이 전부 회복되리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저주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밤이 없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밤이 왜 있습니까? 사실은 휴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밤입니다. 쉬라는 밤에 쉬지 않는 것이 현대 문명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마는 결코 인간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없다는 것은 쉬어야 할 육신의 피곤도 괴로움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별히 몸에 질병이 있어서 고통을 많이 겪지요? 내 몸에 병이 없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성하게 사는 줄로 알았는데 내가 병이 들어서 아프고 힘들어 보니까 나만 아픈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더군요.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그냥 봐서는 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없는 듯 하지만 한사람 한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들 무슨 병이 있어도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애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완벽하게 건강하게 사는 분은 참 드뭅니다. 거의 모두가 이런 질병들을 안고 삽니다. 이것이 회복된 낙원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바라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원에서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고 말합니다(4절). 그의 얼굴? 누구의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읽어갈 수 있다면 강심장입니다.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할 때 항상 얼굴을 땅에 대고 엉덩이를 바짝 드는 이유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타나면 보고 죽을까 싶어서 그런다고요. 그렇게 두려웠던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죠. 그랬던 그 하나님을 회복된 낙원에서는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요?

더군다나 생명나무에 있는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여기에 소성하기 위하여란 표현은 조금 바꾸어서 치료하기 위하여라고 번역해도 좋은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모든 인류는 치료받아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죽음이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사실은 치료해야 할 중병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우주가 하나님께 치료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저주, 병들이 회복된 낙원에서는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에덴동산보다 나중에 회복될 낙원은 훨씬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낙원이 우리가 거할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기억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 입니다마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한끼 굶어도 배가 덜 고프더라고요. 주머니 돈이 다 떨어지고 한끼 굶으면 배가 훨씬 더 고프요. 우리 주머니 속에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 땅에서 한 두끼 굶어도 배가 덜 고프요. 마음이 넉넉하면 배가 덜 고프니다. 그 에덴동산에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무얼 할 겁니까?

해야 할 일이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앞에서 낙원에서 회복이 될 것이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은 하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된 낙원에서 할 일 중에 어느 것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는 것은 너는 내것이다라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듭니까? 왕 노릇하는 게 제일 마음에 들지요? 우리가 이 곳에서 왕 노릇하기 위해서 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산 모든 성도들이 다 왕 노릇하면 국무총리는 누가 하며 장관은 누가 하며 아니 그것은 놔두고 그 밑에 백성들이 좀 있어야 왕 노릇해도 재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좀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게 낫겠습니까? 천국 가서 문지기하는 게 낫겠습니까? 천국 문지기가 낫습니까? 그럼 조금 문제를 바꿉시다. 천국 가서 왕 노릇하는 게 낫겠습니까? 천국 가서 문지기하는 게 낫겠습니까? 천국 가서 왕 노릇하는 게 낫다고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높냐 내가 높냐 따지던 제자들과 비슷해집니다. 천국 가서 너는 문지기해 나는 왕 노릇할 거야? 좀 생각 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가기만 한다면 거기서 문지기를 하든 왕 노릇을 하든 그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천국 들어갔으면 하나님 앞에서 문지기면 어떻고 왕이면 어떠냐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면 왕 노릇을 하든 문지기를 하든 전부 다 넘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시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얼마보다 낫다고요? 천 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이 덧붙이세요. 이 왕지사 천국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보다 왕 노릇하는 게 낫다고요.

전도사가 진급을 하면 뭐가 됩니까? 강도사가 됩니까? 강도사가 진급을 하면요? 목사가 됩니까? 이런 생각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만 있다면 전도사건 강도사건 목사건 아니, 집사인들 그게 무슨 상관인가?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말씀만 제대로 증거할 수 있고 배우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전도사인들 뭐 어떠냐 말이죠.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다면 문지기를 하든 왕 노릇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천국까지 가서 계급 따지시렵니까? 천국 가서도 내가 남편이고 당신이 아내니까 내 말 들어 이것 하시렵니까?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니까 그런 것이 없겠네요. 그러면 문지기는 무엇이며 왕 노릇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문지거나 왕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천국 가서 내가 왕 노릇하고 너는 문지거나 하라는 이 생각이나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 뒤에 앉아서 누가 높냐고 따지는 제자들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심지어 왕 노릇한다니까 “야, 좋다. 날 예수 믿는다고 내가 날 그렇게 폄박했지? 내가 왕 노릇하거든 그때 한 번 보자” 뭐랄까요? 원수 갚으려고요? 저 사람은 나를 폄박했는데 내 백성 노릇하려면 저 사람도 천국 가야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 가서 날 폄박하고 괴롭혔던 저놈들 원수를 좀 갚아야겠다 이런 자질구레한 일은 필요도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좀스러운 일을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천국에서 왕 노릇할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너무 좀스럽게 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늘 머리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기억하시고 그 나라에서 내가 왕 노릇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계시록이 초대교회의 고통 당하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이 성도들은 세상 왕들에 의해서 혹은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 당하는 성도들에게 요한이 말합니다. 여기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거기서 왕 노릇할 것이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을까요 참말을 했을까요?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행복함을 이렇게 왕 노릇하리라고 표현한 것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요?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것보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훨씬 더 행복할테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위로의 말씀으로서 참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노릇과 문지기 노릇을 다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천국에서 우린 주로 무엇을 하지요? 찬양하고? 설교는 없죠? 목사님들은 천국 가시면 설교가 없어서 상당히 심심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다른 것을 준비 좀 하셔야겠네요.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아는 것은 우리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행복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노래를 죽어도 못한다는 음치가 혼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는 어떨 때죠? 아니 남이 노래시키면 죽어도 안 하는 음치가 혼자 앉아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면 어떨 때입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럼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찬송을 아무리 잘해도 이 상태로 천국 가면 다 음치입니다. 그런 음치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부르는 찬송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기쁨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유는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왕 노릇하리라고 하신 것이죠. 이왕에 거기 가서 왕 노릇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해야지요.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낮아져야 돼요.

올라가는 게 목표인데 낮아져 버려야 돼요?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 천국 가서 왕 노릇하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낮아져야 되네요. 이것 큰일입니다. 어쨌건 왕 노릇은 좋은 것이니까 오늘부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즐겁습니까? 안 즐겁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한 녀석이 집에 가면 맨날 문지방에 턱 걸터앉아서 발을 내밀었어요. 나이 많은 자기 엄마가 세수 대야에 물 떠와서 아들 발을 씻겨요.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는 한 번씩 쥐어박아요. 다 큰 녀석이 뭐 하는 것이냐고. 이 놈 답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놈 한마디에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난 지금 효도하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내 발을 씻기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알아?” 행복해 하는 일을 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다 큰 아들 발 씻어주는 그 엄마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씻겨 본 사람만 알지요. 아니 어떻게 본다면 꼭 중노릇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행복할까요? 그 중노릇이 돈 받고 하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안 하면 안된다는 의무감에서 하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온 것인데요?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저는 식사 후에 어머님께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편입니다. 빈 그릇이라도 싱크대까지 나르려고 애를 좀 씁니다. 우리 어머니 고생을 참 많이 한 것을 생각하면 볼 때마다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동생들이 한 번씩 집에 들르면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참 답답하다 싶는데 내가 잘하는 것인지 우리 동생들이 잘하는 것인지 솔직히 말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서 몸이 닳도록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만 좀 쉬세요 해도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게 의무감이나 누가 시켜서 하는 일 같으면 못해 낼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낮아지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묘하게도 우리가 보았던 구절을 보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는 말씀도 있고 바로 그 앞에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거기에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일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요? 어떤 점에서 같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묻혀 있다는 점에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왕 노릇합니까? 남편이 합니까? 그러면 행복할까요? 가정에서 왕 노릇한다고 하나까 좀 이상합니다만 가정에서 폭군처럼 아니면 내 마음대로 왕 노릇할 때 그것이 행복합니까? 마누라도 시키고 아이들도 시키고, 시키면 시킨 대로 말을 척척 잘 듣고 이러면 만족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보다 더 큰 행복은 가족을 위해서 서로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정에서 왕 노릇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고 부부가 서로 중 노릇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설마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부부가 아직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있다면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평생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서로 섬기면 서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꼭 눌러 꼼짝 못하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뒤집어져서 아내가 남편을 쥐고 흔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매 맞는 남편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쫓겨나오는 남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쫓아내고 아내가 집에서 큰소리 딱 치고 있으면서 “들어오기만 해 봐라” 하고 버티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피차간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피차간에 서로 섬김으로서 서로 왕 노릇하는 것이 정말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데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왜 천국에서 왕 노릇하는 것과 문지기 노릇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왕 노릇하는 관계는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맛을 조금 보게 되

지요. 또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는 겁니다. 왜 섬깁니까?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매일 섬기라고 그러니까 꼬라지는 보기 싫지만 섬기는 척이라도 해야지? 아니, 그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은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을 때라야 가능합니다. 어차피 저렇게 무능하고 하는 짓마다 말썽 뿐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구요? 해답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형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것만 확실하다면 능력이 좀 떨어지고 성질이 좀 못됐다고 하더라도 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섬김으로 서로가 왕 노릇하게 되는 것이 교회에서 가능해져야 합니다.

제 동생이 있는 어느 교회에 소위 말하면 꼰밭이 센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원래 변두리의 조그마한 교회의 장로였는데 주변에 마을이 크게 형성되면서 동시에 교회가 크게 되어버린 경우죠. 작은 교회가 엄청나게 자라면서 동시에 수석장로라는 직분을 즐기게 된 겁니다. 그릇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가는 거죠. 그 분 때문에 큰 문제랍니다. 장로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러고 있으면 그것 재미있습니다. 교인이 몇 천명 되는 교회인데 “내 성질 건드리면 일 되나 봐라” 이라고 딱 고집부리고 있으면 그것 재미있습니다. 답답하면 와서 살살 달래고... 나중에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는 제껴 놓고 일단은 재미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기는 터지겠지만 일단은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즐기고 있을 동안에 많은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섬기면서 왕 노릇하는 것인데 바로 이 장로님은 그 재미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냥 낮추는 척, 그냥 겸손한 척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소중하게 대할 때 진심으로 그를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게 되면 왕 노릇하는 그 이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를 우리는 신앙 선배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 행복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행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오로지 자기 한 몸 다 버려서 교회를 섬기고 섬기는 일에 한 평생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만큼 행복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쁨이 있길래 스스로 문둥병이 들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문둥병 들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어도 보통 낮춘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기쁨은 남이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에서 볼 때는 야만국이죠. 미개하고 야만스런 불쌍한 민족이었죠. 그런데 뭐 믿고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선교사들이 왔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해 진 것은 88 올림픽 때라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6.25 전쟁만 생각하는 거죠. 6.25 전쟁 때 다 부서지고 깨지고 거지가 즐비했던 그 장면만 서양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코리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88 올림픽 때문에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후진 나라에 무엇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던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그것도 많이 배운 의사요 엘리트들이 찾아왔습니까? 자신들을 그렇게 낮춤으로 해서 거기서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 누가 설명하고, 가르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왕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왕 노릇할 것이므로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제대로 왕 노릇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서 하기가 어렵더라도 우선 내 가정에서라도 연습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섬긴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자식, 참 마음대로 안되거든요. 곱게 곱게 낚고 믿고 있었는데 어디 가서 사고 한 번 쳐 놓으면... 며칠 전에, 제 기분으로 아마 제 평생에 가장, 흔히 말하는 남사스럽다고 할까요? 난생 처음으로 학부형 자격으로 학교에 불려갔거든요. 22년이나 들락거리던 학교지만 남사스럽고, 부끄럽고... 그 날 하루 애 많이 먹었습니다. 자식, 그것 마음대로 안됩니다. 성질 난다고 어떡하겠어요? 강제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조차도 우리는 섬기는 자세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월 지나면 그래도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2001.07.11] 왕노릇 한 번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22:1~5)

가정에서 서로 낮추고 섬김으로 왕 노릇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왕 노릇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자신을 낮춘 그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왕 노릇은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기면서 왕 노릇하는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